AI 등 시대 과제, 불교 접점 논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I·디지털 시대에 내면 평화와 종교 커뮤니케이션 등 산적된 과제들을 불교적으로 고찰·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9월 27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날 국제학술대회에 AI시대를 맞아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야닉 브뤼느통 프랑스 파리 시테대 교수가 '백운화상록(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백운화상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원하이밍 중국 인민대 교수가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yibenlun 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을,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오공(五共)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을, 오영국 동국대 박사과정생이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을, 박진영 동국대 박사과정생이 '수행으로서의 축제-대행선사 가르침에 입각한 연등회 준비'를 발표한다.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한마음과학원 9월 27일 안양본원서
'내면 평화와 지속 가능 미래' 주제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
동국대 미디어커뮤硏과 공동으로
'종교커뮤니케이션' 주제 발표진행

토론자로는 청동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혜유 스님(한마음아카데미·독일), 김재영(산동대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이준엽(약산애 한방병원장), 양영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소진(신한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마음과학원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미국·중국·프랑스 등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현대과학, 인공지능,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AI와 명상, 불교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연구 발표를 통해 미래 사회의 정신적·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0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학: 데이터로 읽는 지식과 수행'을 주제로 한 이날 계절발표회는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강재원)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는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론이 불교학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권호진 SBS미디어넷 국장은 '종교커뮤니케이션의 학술동향 : 불교, 기독교, 가톨릭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 논평자로는 남철우 KBS미디어연구소 연구원, 김봉래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 장하용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여현 스님(동국대 박사)이 참여한다.

계절발표회에서는 묘공학술상 수상작 소개도 진행된다. 2022년 제4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인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묘공 대행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가정하여'를 발표한다.

한편, 국제학술대회와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양주 회암사지 승탑 면면을 살피다

9월 5일 회암사지박물관 학술대회

여말선초 고승 상장례 연구부터
승탑 양식, 분사리 문화 등 조명

양주 회암사지에는 여말선초의 고승인 지공(指空, ?~1363),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 삼화상의 승탑과 탑비가 있다. 당시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세 고승의 승탑을 학술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여말선초 회암사의 공간과 승탑'을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미술사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여말선초 승려의 상장례 문화부터 분사리 문화, 승탑 양식 등 회암사지에 전해지는 삼화상 승탑 전반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수연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시대 승려의 상장례 문화와 회암사 승탑의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12세기 초 고려에 도입된 '선원청규'가 당시 스님들의 상장례 문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2세기부터 다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는데, 이때 고승들이 왕이나 재상에게 보내는 유언장이 등장한다. 이러한 유언장들은 12세기 초 고려에 들어온 '선원청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선원청규'에는 고승의 장례 때 유언장을 작성해 주변 사찰에 보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민왕 대에는 '칙수백장청규'가 도입됐고, 이 청규가 나옹 혜근의 장례에 적용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고승의 장례 절차를 서술한 '칙수백장청규' 천화 항목을 살펴보면 주지가 입적했을 때 다비 후 의장을 갖춰 영골을 침당에 두었다가 탑 안에 봉안한다고 기술됐다"며 "'나옹화상어록'에 기술된 나옹 혜근의 영골을 맞이하는 과정도 청규와 같다. 이는 청규의 장례 절차가 나옹 혜근의 장례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여말선초 회암사의 공간과 승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다만 무학 대사의 경우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성리학을 기치로 건국된 조선에서 왕사(王師)의 입지가 약해졌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회암사 승탑의 연원과 중국, 일본 승탑 전통과의 상호 관계(오호석) △고려~조선시대 분사리 문화와 부도의 건립(엄기표) △고려 말 네 사찰의 나옹 혜근 승탑: 건립 동기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마르코 트롬베타) △고승 추모로 창출된 새로운 조형 질서(성서영) △회암사지 승탑과 조선왕실 석조물 편년에 대한 두 가지 관점(김민규) 등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런던서 평화 기도하는 일본인 스님 '화제'

40년간 평화 위한 걸음
불사리탑서 매일 예불


런던 배터시 공원에 살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나가세 교로 스님.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40년 넘게 런던 공원에 살며 불사리탑을 관리하고 세계 평화를 기도한 스님이 화제다.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9월 4일 '런던 평화의 스님'으로 알려진 나가세 교로 스님의 삶을 보도했다. 교로 스님은 1984년 일본 일련종 계열 종단 묘호지(日本山妙法寺)가 세운 런던 배터시 공원의 '세계 평화의 불사리탑' 옆 창고를 개조해 거주하며, 매일 새벽 예불 후 염불을 하며 탑과 공원 부지를 돌며 세계 평화를 기도한다.

교로 스님은 "200에이커(약 80만㎡)가 넘는 영국의 공원 부지에 사는 스님은 내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반핵·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매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8월 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불사리탑까지 이어지는 종교 간 평화걷기를 이끌고 있다.

1951년 일본 나고야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인도 여행 중 세계평화 사리탑에서 스님들이 북을 치고 염불하는 것에 매료된 이후 스리랑카에서 불사리탑 건립에 자원한 뒤 출가했다. 이후 종단의 종지를 실천하며 세계 각지에서 평화 걷기를 이어 왔다.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 체르노빌과 9·11 테러 현장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몸이 지쳐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행진을 하고 싶다"면서 평화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 염불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허난성 불교협회, 청정계율수호 다짐

소림사 전 주지發 스캔들에
"깊은 반성…경각심 갖고 시정"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의 스캔들이 중국불교계를 흔들면서, 소림사가 위치한 허난성의 허난성 불교협회가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 4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허난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스융신(본명 류잉청)은 1999년 소림사 주지에 오른 뒤 사찰을 문화 브랜드화 하며 'CEO스님'으로 불렸다. 2000년대 초에는 '허난소림사'란 회사를 세우고 700여 개 상표를 등록해 연 매출 12억위안(약 2300억원·2019년)을 올리며 해외 지사도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네 차례 지내며 정치적 입지도 다졌다.

그러나 2015년 제자들과 피해자들의 제보로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사업과 사찰 자금 횡령 및 사적 운용 혐의와 함께,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생아까지 두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중국불교협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 그의 멸빈을 선언하며 "불교계 명예를 훼손하고 출가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스융신 스캔들 이후 중국불교계에 출가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사찰의 지나친 상업화 문제가 잇따라 폭로됐다. 이에 허난성 불교협회는 "눈을 보호하듯 수행정진하며, 청정한 마음을 수호하듯 계율을 지키도록 출가자들을 지도하겠다"면서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여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는 불교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허난성 불교계의 계율 위반과 지나친 상업화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과 경각심을 갖고,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